

IBREA Report

2012. 5. 10 <5호>

한국 두뇌산업 미래와 방향 - 대한민국 제1회 브레인엑스포 개최



‘뇌(Brain)’는 누구나가 인정하는 21세기를 대표하는 키워드. 인류과학의 정점이라는 뇌과학으로 촉발된 이른바 뇌융합시대의 도래는 21세기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1998년에 이어 2008년 제2차 뇌연구촉진법 시행, 국립 한국뇌연구원 설립확정, 지식경제부 6대 미래산업 ‘뇌-신경 IT융합 뉴로툴’ 선정 등 두뇌산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2012년 4월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 두뇌산업 역사의 분기점이 된 행사가 열렸다. 바로 ‘대한민국 제1회 브레인엑스포’의 개최가 그것이다. 한국뇌과학연구원 주최, 국제뇌교육협회, 국가공인 브레인트레이너협회가 주관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공식 후원한 브레인엑스포(BrainExpo)는 한국 두뇌산업의 원년을 알리는 행사로 주목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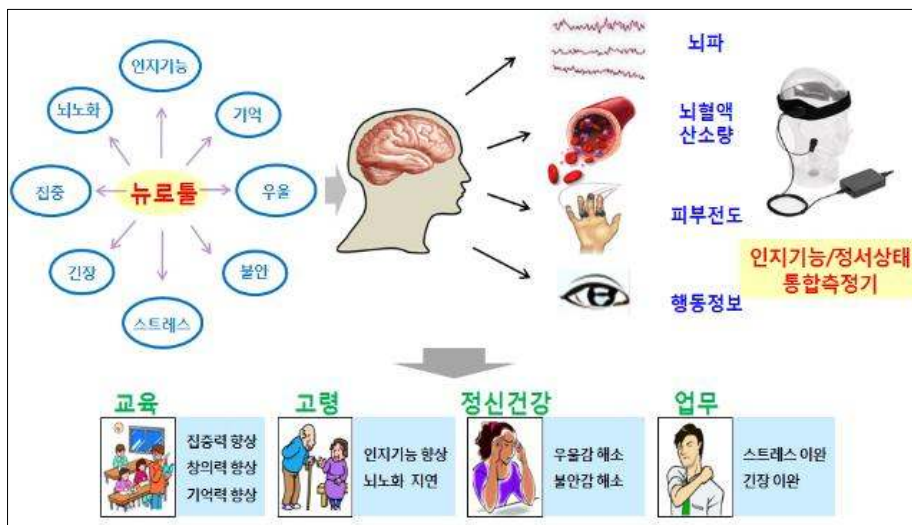
특히 ‘브레인엑스포(BrainExpo)’는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에서만 개최해 오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뇌기반학습(Brain-based Learning, BBL)에 관한 교육 컨퍼런스 중심의 학술행사로 열리는 반면 이번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브레인엑스포는 건강, 교육부문뿐 아니라 첨단기술과 자기계발, 기업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과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세계에서 처음으로 ‘브레인엑스포’의 서막을 연 셈이라고도 볼 수 있다.



브레인엑스포 공식홈페이지 www.brainexpo.co.kr

브레인엑스포, 21세기 미래키워드 ‘뇌’ 방향성 제시

2011년 3월 지식경제부 R&D전략기획단은 한국의 향후 30년 먹거리가 될 수 있는 6대 미래산업 중 하나로 '뇌-신경 IT융합 뉴로톨' 분야를 선정하면서 선진국이 앞서가고 있는 뇌질환 기반의 뇌과학 기반연구 보다는,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 인지기능 향상 등 정신건강 산업과의 연계된 분야를 선점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지식경제부 R&D전략기획단 선정 ‘뇌-신경 IT융합 뉴로톨’ (2011)

또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011년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뇌로 움직이는 미래 세상 : 뇌-기계 인터페이스(Brain-Machine Interface) 및 뉴로피드백(Neurofeedback)」을 선정 한 바 있는데, 당시 “뇌과학이라는 미래 국민 생활의 편익증진과 산업·기술에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을 다룸으로써, 경제, 사회, 윤리 등 국가과학기술이 가져올 여러 측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린 브레인엑스포는 21세기 뇌 융합시대가 2012년 들어 본격화되는 사실상 ‘한국 두뇌산업 원년’을 선포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뇌, 전문영역에서 생활 속으로



<다양한 생활 속 주제로 진행된 2011년 세계뇌주간 행사 포스터>

이번 제1회 브레인엑스포 개최를 통해 확연히 드러난 사실은 더 이상 뇌가 과학과 의학분야 전문가들의 영역으로만 자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매년 3월 3째주 전 세계 선진 60여개국에서 열리는 세계뇌주간 (WBA, World Brain Awareness)의 흐름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세계뇌주간 행사는 1990년대에는 뇌과학 주제가 주를 이루었지만,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점차 뇌에 대한 생활적 측면의 접근이 이루어지기 시작해 건강, 교육 분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현재는 뇌과학에 대한 지식 측면에서 벗어나, 건강관리, 집중력, 창의성, 우울증, 폭력예방, 정서조절, 명상 등 생활 속 키워드와 연관된 대중적 주제로 변화한 상태다.

한국 두뇌산업, 기술 중심 아닌 ‘휴먼테크놀로지’로 나아가야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성인들은 ‘뇌’라는 단어에서 생물학적인 뇌를 떠올리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교육의 결과이다. 이제 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데, 특히 뇌를 변화시키고 개발하는 대상으로, 즉 교육적 객체로 인식하고, 인간 뇌에 가치와 정신을 부여하는 쪽으로 의식의 지점이 이동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것은 브레인엑스포의 캐치프레이즈인 ‘뇌, 희망을 말하다’에도 나타나있듯이, 인류과학의 정점이라는 뇌과학을 토대로 한 브레인엑스포 (BrainExpo)가 기술 중심이 아닌 인간중심의 방향성과 가치를 표방했다는 점은 매우 높게 평가할 만하다.



이승헌 국제뇌교육협회장은 “21세기를 뇌융합시대라 하지만 철학이 없는 융합은 위험하다며, 두뇌산업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휴먼테크놀러지(Human Technology)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두뇌산업은 종래의 기술과 상품 중심이 아닌, 사람의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흐름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 같은 점은 이승헌 협회장의 브레인엑스포(BrainExpo)기조연설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브레인엑스포가 개최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 기억해야할 것은 대한민국 브레인엑스포가 단순히 뇌과학 발전을 제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누구나가 가진 뇌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가치를 제시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1회 브레인엑스포’는 ▲두뇌산업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한국두뇌산업포럼', ▲미래 대안교육으로 주목받는 뇌교육의 현황과 전망을 제시하는 '국제뇌교육컨퍼런스', ▲뇌를 활용한 두뇌관리법과 첨단 뇌파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두뇌체험전' 3가지 행사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첨단 뇌파(EEG) 기술을 제시한 '두뇌체험전'은 건강, 교육, 자기계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뇌파기술 기반 생태진단 및 두뇌훈련, 브레인피트니스 산업 등을 직접 체험하며 즐길 수 있도록 꾸며져 관람객들의 관심이 높았다.



두뇌훈련시장, 전문가수요 증가로 두뇌훈련전문가 유망자격으로

‘한국두뇌산업포럼’은 두뇌훈련분야 국가공인 자격협의체인 브레인트레이너 협회(www.brain-tr.org)가 주최하였는데, 다른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두뇌 훈련분야 ‘브레인트레이너’ 민간자격을 2010년 국가공인하면서 두뇌산업 발전에 중심이 될 관련 전문가 교육 및 배출을 서두른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볼 수 있다.

건강, 교육, 문화, 경제, 게임,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잠재된 두뇌 능력을 계발하고, 두뇌의 수행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두뇌훈련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면서 해외 선진국에선 해당 분야의 전문자격제도도 활성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두뇌훈련 자격인 ‘Brain Gym Instructor & Consultant’은 몸의 움직임을 통해 두뇌를 자극하여 집중력, 기억력, 읽기능력, 쓰기능력, 통합능력, 운동협응능력 등을 개선하는 것으로 1970년부터 미국에서 시작해 전 세계 80개국 공립·사립학교, 기업체 등에 보급하고 있다.

현재 발급기관인 BrainGym International은 영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등 BrainGym Instructor 및 Consultant 자격검정제도를 38개국으로 확산해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미국 내 여러 대학과 샤프브레인사가 연계한 ‘Brain Fitness Training for Trainers’, Jensen Learning사의 ‘Brain-based Certification’ 등이 있으며 미주에서 뇌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Brain Management Consultant(BMC 뇌운영관리사)’도 주목을 받고 있다.

두뇌훈련 분야 주요 해외 자격증

국가	자격증	발급 기관
국제	BrainGym Instructor/Consultant	BrainGym International
미국	Certification in Brain Nutrition Counseling	Brain Optimization Institute
미국	Brain Fitness Training for Trainers	University of California & Berkeley and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 Sharp Brains
미국	Brain-Based Certification	Jensen Learning
미국	Brain Integration Technique Practitioner	Learning Enhancement Center
미국	Brain Management Consultant	International Brain Education Association Foundation
캐나다	Certified Whole Brain Practitioner	Canadian Association of Whole Brain Practitioners

[출처] IBREA Foundation

국제뇌교육컨퍼런스, 미래교육대안 교육 ‘뇌교육’ 집중조명

특히, ‘뇌, 희망을 말하다’라는 행사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이번 브레인엑스포는 뇌에 대한 뇌과학적 탐구만이 아닌 인간 뇌의 가치와 활용에 중점을 두고, 21세기 뇌과학-교육 융합트렌드 시대에 미래교육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뇌교육(Brain Education)’에 대한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하다.

유엔공보국(UN-DPI) 정식지위 NGO기관인 국제뇌교육협회(www.ibrea.org)가 주최하고 교육과학기술부 후원으로 열린 국제뇌교육컨퍼런스에는 과학계, 의학계, 교육계 대표 전문가들의 특별강좌를 시작으로 청소년 폭력예방과 정신건강, 창의인성 증진 국내 교육사례를 비롯해 유엔을 통한 뇌교육 해외원조사례 발표 등이 진행되어 미래교육대안으로 주목받는 뇌교육에 관한 다양한 세션이 열렸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앞서 정립된 한국 뇌교육의 4년제, 대학원 학위과정을 비롯한 검사, 자격제도, 매체, 이러닝, 도서를 비롯해 영역별 대표기관 등 뇌교육의 모든 것을 한 눈에 제시한 ‘뇌교육가이드BOOK’이 발행된 것도 ‘뇌교육’이 21세기 뇌과학-교육 융합시대를 맞아 새로운 트렌드로 들어선 사례로 평가된다.

뇌과학, 뇌건강 분야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정도이지만 뇌의 교육적 측면, 즉 가치와 정신이 있는 뇌에 주목하고 뇌를 건강과 행복의 주체로 인식하고, 적용하는 뇌활용 분야는 우리가 가장 선두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뇌교육은 당면한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교육대안으로서 ‘대한민국 제1회 브레인엑스포’에서 가장 화제가 되기도 했다.

[참조사이트] 국제뇌교육협회 www.ibrea.org